

우주

AST Spacemobile의 상반된 두 가지 뉴스

우주 정의훈_02)368-6170_uihoon0607@eugenefn.com

FCC로부터 위성 운용 최종 승인 but 블루버드 7 호기 발사 실패

AST SpaceMobile(ASTs)은 별도의 단말기 교체 없이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위성 통신을 직접 이용하는 D2C(Direct-to-Cell) 서비스에 특화된 저궤도 위성통신 기업이다. 경쟁사 대비 차별점은 스타링크처럼 별도 수신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 이동통신 주파수(AT&T·버라이즌의 4G/5G 대역)를 그대로 활용해 일반 스마트폰에서 위성 신호를 직접 수신할 수 있다는 점이다.

상용 서비스를 위해 발사된 위성은 현재까지 총 6기다. 2024년 9월 1세대 운영 위성인 BlueBird Block 1 5기를 스페이스X 팰컨 9에 탑재해 동시 발사했으며, 2025년 12월 차세대 Block 2의 첫 위성인 BlueBird 6호를 인도 ISRO의 LVM3 로켓으로 발사해 궤도 안착 및 안테나 전개까지 완료했다. Block 1은 5기를 팰컨9 한 대로 동시 발사할 수 있는 규모였던 반면, Block 2는 안테나 면적이 약 3.5배 확대되고 처리 대역폭이 10배 향상된 차세대 위성으로 위성 1기당 무게가 약 6,100kg에 달한다. 이에 따라 Block1처럼 로켓 한 대에 다수를 동시 탑재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며, 연말까지 45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발사 주기를 촘촘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최근 규제 측면에서는 결정적 진전이 있었다. 4월 21일, FCC는 AST SpaceMobile의 248기 전체 위성 군집 운용을 최종 승인하고, 미국 내외에서 우주 보조 커버리지 서비스 제공을 허가했다. AT&T와 Verizon의 지상 주파수 스펙트럼을 위성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도 공식 인정받으면서, 기존 이동통신망 음영 지역을 위성으로 보완하는 상업 서비스 개시를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그러나 발사 측면에서는 차질이 발생했다. 4월 19일 블루 오리진 뉴 글렌의 세 번째 비행에서 Block 2의 두 번째 위성인 블루버드 7호 배치에 실패한 것이다. 뉴 글렌 1단 부스터는 대서양 해상 플랫폼에 성공적으로 착륙해 재사용 비행을 완료했으나, 2단 엔진이 목표 궤도 도달에 실패했다. 블루 오리진 CEO 데이브 림프는 2단 2차 연소 중 BE-3U 엔진 1기가 충분한 추력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블루버드 7호는 운용 고도 진입이 불가능한 저궤도에 머물게 됐으며 대기권 재진입으로 소실될 예정이다. FAA는 이번 발사에 대해 원인 규명 및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뉴 글렌의 후속 발사를 중단시켰다.

AST SpaceMobile은 위성 손실에도 불구하고 연간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블루버드 32호까지 생산을 진행 중이며, 8~10호기는 약 30일 내 출하 준비가 완료될 예정이다. 2026년 한 해 평균 1~2개월 주기로 발사를 이어가 연말까지 약 45기의 위성을 궤도에 올린다는 계획도 유지하고 있다. 위성 손실 비용은 보험으로 충당할 방침이며, 복수의 발사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있어 뉴 글렌 외 대안도 확보된 상태다.

다만 AST SpaceMobile과 아마존 LEO 모두 뉴 글렌을 주요 발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운항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두 기업의 위성 군집 구축 계획에 공통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스타링크 모바일이 T-모바일을 통해 서비스를 확장하고, 아마존이 글로벌스타 인수로 위성 인프라를 강화하는 가운데, AST SpaceMobile의 상용화 일정 현실화 여부는 뉴 글렌 운항 재개 시점과 이후 발사 성공률에 달려 있다.

AST Spacemobile 위성 군집 상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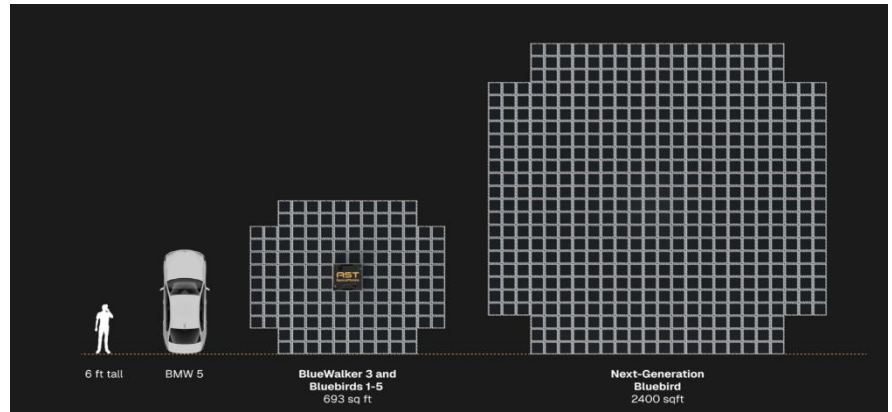
자료: AST Spacemobile, 유진투자증권

블루 오리진 뉴 글렌 발사 장면 (4/19)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블루버드 위성 크기 비교



자료: AST Spacemobile,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개월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이상 ~ +15%미만	5%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증가대비 -10%미만	0%

(2026.03.31 기준)